

<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 22,14—23,56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래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자는 없애고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바라빠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어 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 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 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의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신경>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2년
4월 1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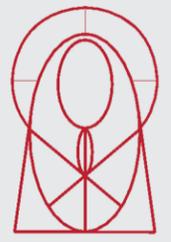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예루살렘 입성> 1302-06년, 지오토 디 본도네 파도바 아레나 스크로베니 경당, 이탈리아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이사야서 50,4-7
화답송 시편22(21),8-9.17-18ㄱ. 19-20.23-24 (㉔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 사도 바오로 필리피서 2,6-11

복음환호송 필리 2,8-9참조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복음 루카 22,14-23,5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4/11/22	이사야서 42,1-7	요한 12,1-11
화요일 04/12/22	이사야서 49,1-6	요한 13,21-38
수요일 04/13/22	이사야서 50,4-9ㄴ	마태오 26,14-25
목요일 04/14/22	탈출기 12,1-14 사도 바오로 코린터1서 11,23-26	요한 13,1-15
금요일 04/15/22	이사야서 52,13-53,12 히브리서 4,14-16; 5,7-9	요한 18,1-19,42
토요일 04/16/22	창세기 1,1-2,2 창세기 22,1-18	루카 22,14-23,56
일요일 04/17/22	사도행전 10,34ㄱ.37ㄴ-43 사도 바오로 콜로새서 3,1-4	요한 20,1-9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홍사총(베로니카) - 이규옥(율리안나)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윤동순(마리아) - 이석종(스테파노)
- 윤명섭(아오스딩) - 가족
- 김용한 - 가족
- 박 요한, 지 레아 - 박재영(요아킴)
- 김태선(토마스아퀴나스) - 이규옥(율리안나)
- 이동현(요셉) - 가족
- 이병하(마지아), 이호건(안드레아) - 최정원(레지나)

생미사 - 봉헌자

- 박재영(요아킴) - 하건철(안토니오)
- 허기욱(바오로) - 하건철(안토니오), 이순재(마리아)
- 오경선(원선시오) - 이순재(마리아)
- 채미영(데레사) 가정 - 정 데레사, 성가대
- 이은숙(가브리엘라) - 사랑공동체
- 김영식(헨리코), 김영식(바오로) - 이규옥(율리안나)
- 채 쟈마 - 가족
- 오용덕(헨리코) 책출간 축하 - 노스에디슨 구역

주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138명 **합계 : \$1,442**

교무금 납부 안내

최영옥(4) 우영인(4-5) 서정근(3-4)
이윤경(4-5) 황태진(3-4) **합계: \$700**

감사 헌금

박루수 (\$100)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2022 Bishop's Annual Appeal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은 \$35,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4까지 약정 금액은 \$30,612 (목표금액의 87.5%, 89가정 참여)입니다.

공지사항

2차헌금

- **4월 10일: 메타천 교구 은퇴사제**
- 현재 Metuchen 교구에는 32분의 은퇴 사제가 계십니다. 10분은 은퇴한 성직자를 위한 Maria Regina Residence 에 살고 있으며, 다른 분들은 사제관이나 개인 주택, 또는 가족, 친구들이 마련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제들은 수많은 미사, 세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애도하고, 우리에게 봉사하며, 수십 년 동안 하느님과 우리 교구의 신자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이 사제들은 은퇴 후에도 미사를 집전하시고, 성사를 도와주십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자, 상담자, 스승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교구를 돕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 교구에서 더 이상 사목을 할 수 없는 은퇴 사제분들도 그들의 기도와 모범을 통해 우리 지역 교회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구역 모임 및 판공 성사 일정

- 4월 10일(일) 미사 후 에디슨 구역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 4월 10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이번 부활 성야에 세례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예비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비 신자 명단 : 문세라(에스더), 조재익(야손)

부활포장마차

- 4월 17일(주일) 미사 후 부활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소: 성당 뒷편 주차장
- 메뉴: 오뎅, 떡볶이, 김밥, 족발 및 주류 등

2022년 성주간 전례 일정

- 4월 10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4월 11일 (성월요일) 오전 9시 미사 (영)
- 4월 12일 (성화요일) 저녁 7시 미사 (영)
- 4월 13일 (성수요일) 오전 9시 미사 (영)
- 4월 14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저녁 7시 (한/영) 성체초배 8시 30분 ~ 11시 30분
- 4월 15일 (성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 오후 3시 (한/영) 십자가의 길 저녁 7시 (한/영)
- 4월 16일 (성토요일) 부활 성야 미사 저녁 8시 (한/영)
- 4월 17일 (주일) 주님 부활 대축일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한신 분들께서는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 1독서 < 이사야서> 50,4-7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22,14—23,56

○해설자+예수님 ●다른 한 사람 ▣다른 몇몇 사람 ◎군중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나? 식탁에 앉은 이나, 아니면 시종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 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을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겹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돌을 던지면 땅을 만 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 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